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2006년 3월 7일 (화)

발행인/전창진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Creation (12) 첫 번째 아담 vs. 마지막 아담 - 이종현 역 | 2쪽 |
| 2. IMPACT (27) 암석의 빠른 변성작용에 대한 증거 - 길소희 역 | 6쪽 |
| 3. 창조설계의 비밀 (9) 제9장 - 이종현 편저 | 9쪽 |
| 4. 참 아름다워라! (12) 계란이 먼저일까? - 서종학 | 15쪽 |

인사말

살롱!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 봄맞이를 하는 경칩을 지났습니다.

아지랑이 고운 축복의 계절을 예감하며 풀꽃향기 그윽한 봄 햇살아래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놀라운 솜씨에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답고 고운 주님의 세계를 어찌 저절로 생겨났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자연을 주님 아니고 그 누구의 솜씨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섭리는 이와 같이 자연의 변화와 미물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이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여 복된 삶 되길 기도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고문 옥 봉흠 장로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5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 : 4월 6일)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 (053) 743-6058

내용: '창조설계의 비밀' 7장 - 길소희 ('창조설계의 비밀' 8장 - 안복수)



첫 번째 아담 vs. 마지막 아담

둘 다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어떻게 중요한가?

성경은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묘한 명칭을 부여한다.(고전 15:45)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째서 그런 명칭이 주어졌나?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런 명칭이 주어졌을까?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

1. 기적적인 시작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땅의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령이 되었다.(창 1:26-27; 창 2:7)

그러므로 아담은 어떤 형태의 유신론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¹⁾ 하나님은 그를 원숭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지 않았으며, 또한 유인원으로부터 지나긴 세월에 걸쳤다가 또는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에 의해 만들지도 않으셨다.²⁾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 주간의 여섯째 날 어느 시간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즉,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나 명령하심으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³⁾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골 1:15).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라고 말해주고 있다(요 1:1-3, 골 1:15-20, 히 1:2).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이 살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미리 계셨다(요 8:58, 미 5:2).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에 있어서 그분 역시 기적적인 시작을 가지셨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마 1:20-23, 눅 1:26-35).

2.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심

아담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전부 소유한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심상(心像)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처음에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자와, 자기 자신과, 및 자기 주변의 자연 세계에 대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역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하나였으며(요 10:30; 17:21-22),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했다(히 7:26).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일컬어 ‘두 번째 사람’(고전 15:47)이라고 말한다.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사람**이었다.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주 예수님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직책과 특권과 이름을 가진 신성한 분이셨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계 5:11-14, 마 2:11, 히 1:6).

3. 인류의 머리

아담은 인류의 머리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된 인간의 머리이다(예로써, 엡 5:23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히 7:27; 9:28; 10:10-14), 더 이상의 ‘아담’이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다.

4. 둘 다 생명을 주는 자

첫 번째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하시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1:1-14)를 주신다.

5. 두 지배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는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주어졌다(창 1:26).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으며, ‘그분의 발아래 두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셨다(고전 15:27, 엡 1:20-22). 첫 번째 아담은 제한된 지배권을 가진 주인(lord)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만유의 주님(Lord)이다(행 10:36).

6. 깊은 잠이 아름다운 신부를 내다

창세기 2:21-23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 옆구리의 상처가 신부를 생기게 했다! 여기서도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지 않음을 주목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를 최초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다(창 1:27; 2:7, 마 19:4).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이전에 그들이 유인원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게 된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찢리셨고(요 19:34),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의 잠을 겪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한 값을 치르셨다(고전 15:1-4).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경이 남편에 대한 그의 신부로 비유하는 관계에 들어오게 된다(고후 11:2, 엡 5:27, 계 19:6-8). 따라서 마지막 아담의 옆구리에 난 상처 역시 신부인 진정한 교회를 생기게 했다. 영광스런 신부이며,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엡 5:27) 신부를.

7. 중대한 시험

아담의 인생 초기에 그는, 그가 하나님을 복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의 시기를 겪었다.⁵⁾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마지막 아담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또는 유혹)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마 4:1, 눅 4:1).⁶⁾

8. 커다란 실패와 커다란 승리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그의 실패에 연루되었고, 인류가 그와 더불어 타락하였다.⁷⁾ 결과적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상태이고, 영적으로 파산했으며, 죄에 사로잡혔고, 낙원에서 쫓겨났다(롬 5:12).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죄와 육체와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자들은 의로운 상태에 있고 구속받았으며, 영적으로 부요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하나님의 낙원 안에 속해있다(롬 5:18, 고전 15:21, 계 2:7).

9. 불복종 대 복종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에게 불복종했다.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빌 2:8).

10. 심판과 죽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다. 궁극적으로 그는 죽었으며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의 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NIV).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사 53:5, 벧전 3:18, 히 2:9). 그러나 그분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그분의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행 2:27; 13:35-37). 세 번째 날에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으며, 그럼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히 2:14),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가져왔다(고전 15:22-23).

11. 저주와 회복

원래의 창조는 ‘심히 좋았으므로’(창 1:31), ‘마지막 적(enemy)’인 죽음이 없었다(고전 15:26).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처음에는 식물이 먹이로 주어졌다(창 1:30). 첫 번째 아담의 행동은 한때 완벽했던 세상에 죽음과 유허의 지배를 가져왔고, 그때 이후로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되었다(롬 8:22).⁸⁾ 정확하게, 마지막 아담이 죽으시며 흘린 피 때문에 이 죽음과 유허의 저주가 제거될 것이며, 창조물이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계 21:1; 21:4; 22:3).

결 론

우리는 모두 (인류의 자연적, 법적 머리가 되는) 첫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선고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회개와 신뢰를 통하여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 용서를 받았고, (값없이) '의의 선물'을 받았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골 1:14, 롬 5:17, 요 3:14).

각 주

1. 창세기 1~5장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류에 대해서 총칭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의의 선물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기인한다고 말했는데, 창조와 타락에 관련하여 '아담'이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2:13-14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 개체라고 가르치고 있다.
2. 창세기 2:7에서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또 다른 생명체로 진화가 된 어떤 생명체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졌을 때에야 살아나게(생명이) 되었다. 일부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2:7에서 아담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말이 짐승으로부터 인간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3:19에서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짐승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3. R. M. Grigg의 'Creation: How did God do it?' Creation 13(2):36-38, March 1991을 보라.
4. 두 아담의 기원을 비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전 15:47)
5. 하나님은 아담이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갖게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복종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복종할 수도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상황 하에서만 확증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은 그 결과가 타락으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할지라도, 아담 인생의 초기에 검증의 시기가 필요했다.
6.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단 한번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7. 아담은 즐거운 동산에 있었으며, 먹을 것이 풍부했고, 배가 고프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런데,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살았으면서도 범죄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고, 먹을 것이 없었으며 매우 배가 고프셨다.
8. 이것이 성경을 긴 시대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 내용의 논리에 커다란 손상을 입힌다는 유력한 이유이다. 화석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것들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면, 그것들은 죄를 짓기 이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창조물에 대해 죄로 인한 어떤 저주도 있을 필요가 없고, 만물이 회복되어야 할 어떤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상태가 없어진다(행 3:21).

(Russel Grigg, Creation ex nihilo, Vol. 21, No. 1, 1999) **참조**

암석의 빠른 변성작용에 대한 증거 (Confirmation of Rapid Metamorphism of Rocks)

두꺼운 퇴적암 지층이 커다란 분지에 연속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곳에서, 그 층연속체(sequences) 하부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은 그 후 퇴적암을 변성암으로 바꾸는 데 충분한 고온과 고압을 수반하는 지반이동(earth movements)에 의해 습곡 되었을 수도 있다. 이리하여 셰일 내의 점토 입자와 사암 내의 광물 입자가 오늘날 편암과 편마암 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광물로 변성된다. 지질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변성과정에 수백만 년이 걸렸을 것으로 상상한다.

이와는 달리, 창조 지질학자들은 단지 두꺼운 층서의 퇴적암이 급격하게 퇴적되었고 지각 구조판(tectonic plates)의 운동이 1년 정도의 대홍수 격변동안에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변성과정도 마찬가지로 빨랐었다고 주장한다. 깊이 묻혀있던 퇴적암과 다른 암석을 포화시키고 그 암석들 사이를 빠르게 유동한 열수로 말미암아 빠른 광물변형이 일어났다.

노르웨이의 변성암 (Norwegian Metamorphic Rocks)

기존의 지질학자들은 최근에 급격한 변성작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된 증거에 놀랐다. 노르웨이의 남서쪽 해안을 따라서, 베르겐 지역에서, 이전의 화성암질 (관입)암석이 선캄브리아대 후기에 지각 깊은 곳에서 암석에 가해진 높은 압력에 의해 **백립암(granulite)***으로 알려져 있는 고온고압의 (high-grade) 변성암으로 급속하게 변했다. 실루리아기에 수반된 대륙판의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뜨거운 유체가 치밀한 간격을 둔 전단대(shear zone)를 따라 침투하여, 그 곳에 있는 암석이 서로 비스듬히 움직였을 때 소성적으로(plastically) 변형되었고, 대부분의 백립암은 **에클로자이트(eclogite)^{2*}**라고 불리는 또 다른 변성암으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에클로자이트는 기막히게 아름다우며, 조립질로서 휘석(pyroxene)이 풍부한 초록색의 기질에 커다란 분홍색 석류석(garnet)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약 60km 깊이에서 대략 700°C 온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노르웨이의 에클로자이트는 역설적으로 지표면에서 가까운 낮은 온도에서 구조적 지질작용에 더 흔하게 수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①석영, 장석지의 등립질 변성암으로 명료한 편리를 보이지 않거나 등립질 편리가 약하게 발달.

②석명, 장석, 휘석, 석류석을 주로 하는 그레놀라이트상 변성암.

2* 주로 석류석과 소다휘석으로 구성된 입상 조직의 염기성 완정질 변성암. 밀도가 높은(약 3.4g/cc) 점이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금홍석(rutile), 남정석(kyanite), 석영을 포함한다.

게다가, 비록 에클로자이트의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도가 그 전의 ‘연대’를 없애버렸을 지라도, 이 에클로자이트에 바로 인접한 백립암 렌즈의 루비듐-스트론튬 방사성연대측정은 변형되지 않은 백립암의 연대에 더 가까운 연대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백립암-에클로자이트 변형은 1백만 년 미만에 걸친 짧은 기간동안의 유체 유동으로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너무나 짧은 시간척도 (A Radical Short Timescale)

하지만, 이제 엄청나게 짧은 시간척도가 제안되어, 많은 지질학자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변형되지 않은 백립암 렌즈 내의 각 광물 입자에 대한 아르곤-아르곤 방사성동위원소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외선 레이저를 사용했다. 이 기법에서, (칼륨-40의 방사성 붕괴로 형성되는) 아르곤-40의 풍부한 양은 아르곤(기체)이 이러한 광물들을 가로질러 빠르게 분산되어 입자 사이의 경계에서 빠져나가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가 지속된 이래로 경과된 시간을 잠정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연대’는 앞선 루비듐-스트론튬 ‘연대’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백립암 렌즈가 바로 인접한 에클로자이트의 뒤이은 형성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아르곤-40의 연대는 그 때 에클로자이트 형성 당시 백립암 렌즈 내에 있었음에 틀림없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400°C 미만이라는 측정치는 바로 인접한 에클로자이트의 형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약 700°C보다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역력한 불일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열이 인접한 에클로자이트로의 변성작용 동안 이러한 백립암에 가해진 기간을 이전에 제시된 1백만 년 미만보다 현저히 더 짧게 하는 것이다. 열이 가해진 총지속기간은 광물 입자 내의 아르곤-아르곤 ‘연대’ 도표를 설명하기 위해 대략 단지 18,000년 정도였어야만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열전도 계산에 따른 결론은 훨씬 더 극단적이다. 뜨거운 유체(약 700°C)가 백립암 내의 전단대를 가로질러 유동하여 그것들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했을 때, 각각의 유체 유동(fluid flow)은 단지 10년 미만동안 지속되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단대 사이의 살아남은 백립암 렌즈에 400°C가 넘는 엄청난 열이 가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정확히 유체 이동(fluid migration)이 지진에 수반되는 많은 간헐적 변형 사건에 의해 유발된다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곳은 뜨거운 유체가 지반이동(earth movements)에 의해 전단대를 따라 분출되어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러한 에클로자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전단대의 파쇄대를 따라서 마찰용융(friction melting)에 의해 형성된 암석과 유체파쇄작용(hydraulic fracturing-고압 상태의 물이나 모래를 주입하여 석유나 가스를 포함하는 암석을 파쇄하는 작용)의 증거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에클로자이트의 변성작용을 초래하는 조건에 대해 너무나 다른 그림, 즉 엄청나게 빠른 변성에 의한 전이(transformation)가 단지 10년 미만 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재현함으로써 기존의 오랜 연대 사고를 뒤집는다.

확증적 증거 (Confirming Evidence)

그렇게 빠른 유체유동사건은 미국의 코네티컷에 있는 편암(schist)의 광역변성작용 동안에 맥형성(vein formation)에 수반되어 있었으므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구 백립암의 빠른 변성작용을 초래한 뜨거운 유체의 이러한 유동으로 인한 노르웨이의 에클로자이트 내에는 독립적인 증거도 또한 있다. **흑운모 박편을 가지고 있는 관련 에클로자이트의 샘플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폴로늄-210 방사성할로(각각 20-30개의 흑운모 박편을 함유하고 있는 50개의 현미경 슬라이드 내에서 7개의 폴로늄-210 방사성할로)도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에클로자이트 내에서 어떠한 방사성할로가 처음으로 보고 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흑운모는 선구 백립암 내에는 없었으므로, 에클로자이트의 변성작용과 유체유동 모두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방사성할로는 단지 그것들이 형성된 후 흑운모 입자 내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모 우라늄-238 혹은 에클로자이트나 선구 백립암 내에서의 방사성붕괴 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원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성할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많은 양의 폴로늄-210이 외부 원인으로부터 뜨거운 유체에 의해 이러한 암석 내의 흑운모 박편으로 이동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폴로늄-210은 반감기가 고작 138일일뿐이므로, 방사성할로는 오직 암석 내에서의 온도가 150°C 이하로 떨어진 후에야 형성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에 의해 야기된 뜨거운 유체유동뿐만 아니라 수반된 에클로자이트 변성작용의 지속기간도 아마도 단지 몇 주나 몇 달로 까지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백립암을 변성시키기 위해 그 암석 속으로 전달된 열은 대개 전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체유동과 관련이 있는 대류(convection)에 의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 에클로자이트 변성작용에 대해 극단적으로 짧은 수 주만이라는 시간척도는 전적으로 적절하다.

결론 (Conclusion)

물론, 주로 오랜 시대에 걸친 느리고 점진적인 지질작용을 그리는 기존의 지질학적 도그마 내에서, 10년이라는 시간척도는 쉽게 받아들여지기엔 너무나 극단적이고 논쟁점이 많다. 하지만, **1년간 지속된 전 세계적인 창세기 대홍수동안 가속화된 격변적 침식, 두꺼운 지층연속체의 퇴적, 지반이동, 판구조운동 그리고 대륙 충돌이라는 문맥에서, 지진에 의해 야기된 뜨거운 유체의 빠른 유동이 백립암 내의 전단대로 주입되어 그것을 수 주 내에 에클로자이트로 변형시켰다는 것은 전적으로 적합하다.** 다시 한번, 지구역사에 대한 창조-대홍수 모델의 또 다른 양상, 즉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의 기록과 일치하는 창세기 대홍수동안 암석의 급격한 변성작용의 타당성을 확정하는 지속적인 연구결과가 제공되었다. **참조**

제 9장 DNA는 인간창조의 설계도이다

1953년에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이 DNA의 이중나선 발견 이후, 과학자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100조개의 세포 안에 단단히 말려있는 180cm의 DNA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놀랍다’는 것이다. 사람의 23쌍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3만개의 유전자들은 무려 20,500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NA의 놀라운 역량은 네 글자 화학 알파벳으로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딘 케니언(생물학 교수), “지성 외에는 이 복잡한 세포장치를 창조할 수 없을 것이다. 분자유전학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계의 증거를 본다.”

프랜시스 콜린스(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 “DNA가 이전에는 신에게만 알려졌던, 우리 자신의 사용설명서다.”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경의 표시는 (1)국민 다수가 신앙인인 미국의 정치사회적 관습에 불과할까? (2)DNA 안의 풍부한 정보를 근거로, 지적설계자가 유전물질 안에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는 정보를 주입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까? (3)최초의 세포들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 해법이 있을까?

일곱 번째 인터뷰 : 스티븐 마이어 박사

철학자, 과학자, 디스커버리연구소 과학문화센터의 책임자겸 수석연구원, 팜비치에틀랜틱 대학 교수(과학의 개념적 토대 강의). 석사학위(케임브리지): 분자생물학과 진화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케임브리지): 생물학 중 생명 기원 분야의 과학적, 방법론적 쟁점들을 분석; (평가)‘평소에는 교수답게 점잖지만, 어려운 질문들이나 열렬한 다윈주의자들과의 피 터지는 논쟁을 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DNA로 얻을 수 있는 설계 논증

생명 기원의 문제는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문제와 기본적으로 같다. 생물이 새로운 기능이나 구조를 얻으려면 세포 어딘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법을 세포의 기계장치에 알려주는 디지털 코드의 창고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이 다 있다고 해도, 세포가 생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물질들을 특정한 배열로 정리하는 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세포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단백질은 DNA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조립되어 나온 산물이다. 그런데 DNA에 있는 정보(생명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정보)의 기원은 지적원인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자연주의적 원인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DNA 안에 있는 정보란 DNA가 4문자의 디지털 코드로 된 정보(단백질 조립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그 문자들은 아데닌(adenine), 구아닌(guanine), 시토신(cytosine), 티민(thymine)이라는 물질로, A, G, C, T로 나타낸다. 이 네 가지를 염기라 하는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열하면 다른 배열의 아미노산(단백질의 구성요소)들을 만들라는 지시가 세포에게 전달된다. 즉, 문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 배열이 다른 아미노산들이 생겨난다.

단백질은 세포에서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분자인데, 그것들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DNA는 일차원 아미노산의 서열을 만들어서 삼차원 모양의 단백질을 창조한다. 단백질의 기능적 특성은 DNA 분자에 저장된 정보에서 나온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즉, 단백질 조립지시는 어디서 나왔을까?

생명에 필요한 정보의 창고 - DNA

DNA에는 단백질 구조와 접힘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배열로 기다랗게 이어진 A, C, G, T가 있다. 단백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 1,200에서 2,000개의 문자 내지 염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인데, 이것은 다시 정보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모든 자연주의적 설명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 정보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생명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분자가 기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보이기 때문이다. 세포 안에 있는 정보는 지적 행위자의 활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수프는 어디로 갔는가?

1871년 다윈, “어떤 작고 따뜻한 웅덩이에 온갖 암모니아와 인염, 빛, 열, 전기 등이 생겨나 단백질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생명이 출현했을 것이다.” → 원시 수프

이 원시 수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 증거는 하나도 없다. 원시 수프가 정말로 존재했다면 아미노산이 풍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미노산은 질소를 함유하니까 질소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최초 퇴적물들을 조사하면 질소가 풍부한 무기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퇴적물들은 한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유기물의 질소 함유량은 상당히 낮은 0.15%에 불과하다. 이 사실로 인해, 선캄브리아기 퇴적물이 형성될 때 지구에는 많은 양의 ‘원시 수프’가 절대 없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수프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서 과학자들은 원시 수프가 이미 확증된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원시 수프의 존재를 입증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생명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연주의적 해법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 무작위한 자연

복잡성의 최소치라는 것이 있다.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특정하게 접힌 소위 ‘3차 구조’가 필요하다. 적어도 75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단백질에서 3차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 단백질 분자가 우연히 발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아미노산 사이의 적합한 결합이 필요하다. 둘째, 아미노산에는 오른손 타입과 왼손 타입이 있는데, 왼손 타입의 아미노산만 따로 모아야 한다. 셋째, 아미노산은 문장 속의 문자들처럼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들이 저절로 맞아떨어질 확률은, 아무리 짧은 생체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10의 125승 분의 일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단백질 분자 하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아무리 간단한 세포라도 300개에서 500개의 단백질 분자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지구가 식은 후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최초의 미생물화석 사이의 기간인 불과 1억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확률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를 실토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이래 과학자들은 DNA나 단백질의 기원에 ‘우연’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을 매우 주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일반 대중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 : 자연선택

무작위한 우연만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선택이 우연한 변이에 작용하면 진화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봉우리를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연이 우연히 작은 변이를 제공하면 자연선택이 그 중 가장 나은 것을 고른다는 다윈주의의 개념을 나타낸다.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큰 변화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선택은 진화가 살아있는 첫 번째 세포를 만드는 산을 어떻게 올랐을까? 생명의 기원을 더 단순한 화학물질로 설명하려는 화학진화에서는 자연선택이 무용지물이다. 다윈주의적 진화가 일어나려면 자기복제 하는 생물이 있어야 하는데, DNA 안에 필요한 정보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자기복제 하는 생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다윈주의자들이 처음에 설명하려는 내용이 바로 DNA에 있는 정보이다.

다른 변명으로, 처음에는 복제가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시작된 다음에 자연선택이 넘겨받았다는 설명이 있다. 소위 ‘RNA 기원 가설’ 같은. 거기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RNA 분자는 DNA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있어야 기능을 한다.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는가? 또한, RNA 한 가닥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똑같은 RNA 분자가 있어야 한다. 적당한 길이의 똑같은 RNA 분자 두 개를 맞춰낼 타당한 확률을 확보하려면 10의 55승개의 RNA 분자가 있어야 한다. 즉, 원시적 복제체계가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

코네티컷 대학의 세포분자생물학 교수였고 핵산전문가인 제이 로스, “첫 번째 생물체계의 존재를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본래 주형이 RNA이건 DNA이건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필요한 본질만 적나라하게 남긴다 해도, 이 주형은 매우 복잡했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이 주형만으로도 창조주의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세 번째 시나리오 : 화학친화력과 자기조직

과학자들은 화학친화력 때문에 DNA의 알파벳 4자가 자기조직을 했거나, 아미노산이 그 상호간의 자연적 친화력 때문에 저절로 연결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접근방식의 첫 번째 주창자는 딘 케니언이었다. 그는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DNA 알파벳인 염기 문자들은 그 자체로 자기조직화 능력을 갖고 있어 그것이 이 분자들 안에 있는 정보의 기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생명의 발달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중에 케니언은 자기 책의 결론을 이렇게 부정했다. 즉, “가장 단순한 세포가 화학친화로 생겨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지적설계가 분자생물학에서 발견된 많은 증거들에 가장 잘 들어맞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화학친화력 때문에 일종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는 사례가 자연에 있기는 하다. 소금 결정이 좋은 예인데, 화학친화력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염소이온과 결합해 소금 결정 내의 대단히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한다. 케니언과 다른 연구자들은 단백질과 DNA도 그런 경우이길 기대했지만, 실험해 본 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이러한 결합 친화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약간의 친화력은 있었지만, 기능 단백질에서 볼 수 있는 서열 패턴들과는 맞지 않았다.

그 외에 이론적으로도 난점이 있다. DNA와 단백질의 서열을 자기조직화 특성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자기조직화는 유전 메시지가 아니라 반복적인 주문만 만들어 낼 것이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열상의 불규칙성이 필요하다. 불규칙성과 ‘특정화된 복잡성’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정보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보는 지성이 개입한 결과이다. 우연, 자연선택, 혹은 자기조직화 과정의 결과가 아니다. DNA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이런 종류의 것이다.

기적에 가까운 일

자연주의의 어떤 가설도 생명의 기원에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과학자들이 앞으로 다른 가설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호하게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즉, 자기조직화 과정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다.

일부 회의론자들이 지적설계 옹호자들에게,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시인하니까 지적설계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지 다른 이론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적설계가 타당하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는 정보이다. 정보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인과적 힘을 가진 한 가지 실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실재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는 내용을 근거로 추론한다. 그것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다.

복잡하고 독립적인 패턴이나 기능 요건에 부합하는 순차적인 배열들은 언제나 지성의 산물이다. 책, 컴퓨터 코드, DNA는 모두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

많은 분야의 과학자들은 정보와 지성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고고학자들이 로제타 석(Rosetta stone, 1799년에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이 나일 강 어귀의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한 비석)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거기 새겨진 비문이 무작위적인 우연이나 자기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 DNA에도 지성이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생물학적 빅뱅

오직 지성만이 유전물질 안에 담긴 정밀한 정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캄브리아기 폭발’(새로운 생물 형태들이 완전한 형태로 갑자기 등장한다)도 설계자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적 원천에서만 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유전정보와 기타 생물학적 정보가 갑작스럽게 주입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생학과 발생생물학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DNA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DNA는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의 일부를 제공한다.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만, 단백질은 더 큰 구조로 조립되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 전체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DNA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가? 세포, 조직, 기관과 체제의 계층적 배열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다윈주의자들에게는 답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날 고생물학자들은 5백만 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최소한 20가지 많게는 35가지의 문(phylum)이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불쑥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 속도는 지구 역사 전체를 24시간으로 압축할 경우 캄브리아기 폭발은 대략 1분 정도에 해당한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생물의 복잡성이 거짓말처럼 비약적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그전까지 지구상의 생명체는 상당히 단순했다. 단세포 박테리아, 청록색 해조류, 일부 해면과 원시벌레들 또는 연체동물들이 전부였다. 그러다 화석기록상 어떤 조상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생물들이 지질학적으로 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등장한다. 그 후에는 평형상태가 나타나서 기본적인 체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모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물의 느리고 점진적인 발달을 예측한 다윈주의와 완전히 반대된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이 모든 새로운 단백질, 세포와 체제를 만든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오늘날의 동물에게 있는 라미신 옥시디아제 분자에는 400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그런 복잡한 분자들을 만드는 유전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는 무작위한 우연이나 자연선택, 자기조직화 등이 생성할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특정화된 유전정보가 필요하다.

일부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 등의 개념을 꺼내어 해명하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증거를 포괄하는 설명은 하나뿐이다.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명백하게 받아들여질 답을 생물학의 많은 과학자들은 피하고 있다. 그 답은 지적 설계이다.

하향식 패턴에 맞추기

일단 목적을 가진 창조주의 개입가능성을 대안설명 중 하나로 허용하면 캄브리아기 폭발의 퍼즐은 금새 맞춰진다. 이 경우 캄브리아기 특성 중 하나인 ‘하향식 패턴’에 대해서도 지적설계로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신다윈주의는 ‘상향식 패턴’을 예측한다. 즉, 진화하는 생물들의 형태상 차이점들이 처음에는 작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형태와 체제구성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폭발 동안 나온 화석들은 전혀 다른 ‘하향식 패턴’을 보여준다. 형태와 체제상의 주요한 차이점들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들 앞에 위치했을 더 간단한 전이형들은 없다. 그 후 서로 구별되고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의 틀 내에서 사소한 변이들이 일어난다.

몇몇 사람들은 ‘단속평형설’ 같은 진화적 변화의 커다란 도약을 제안하여 이것을 설명해보려 했지만 하향식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사실 단속평형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적 변화의 증가분이 더 클거라고 주장하는 상향식 패턴을 예측한다. 그러나 지적설계를 가정하면 하향식 패턴은 수궁이 된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적 설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패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체제들은 설계자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태상의 주요한 차이점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소규모의 변이들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지성은 우리가 화석기록과 인간 기술에서 볼 수 있는 하향식 패턴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제는, 최선의 자연주의적 설명만 찾아서는 안 되고 대신에 최선의 설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적설계는 세계의 운영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이다.

마음의 특징

20년 앞을 내다보자. 그러면 생물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혁명이 다윈주의와 화학진화론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주의는 ‘물질과 에너지에서 지성의 정보 주입 없이 어떻게 생물학적 기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할 수 없다. 정보는 마음의 특징이다. 유전학과 생물학의 증거만으로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거대한 마음의 존재를 추리할 수 있다. 의식과 목적이 있고,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놀랍도록 창의적인 설계자를.

(요약) 생명의 중심부에 있는 자료는 무질서하지 않고, 소금 결정처럼 규칙적이지만도 않다. 그것은 기가 막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잡하고 특정한 정보다. 지성 외의 다른 무엇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가? 지적 존재가 유전 암호에다 네 가지 화학 문자로 자기 존재의 증거를 새겨 놓았다. 마치 창조주가 모든 세포 위에 서명을 해 놓은 것 같다.

인간 의식이라는 독특한 현상은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졌을까? 순전히 생물학적 처리능력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거나 신념을 형성하거나 자유롭게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내 의식은 뇌의 물리학과 화학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안에 비물질적인 마음과 영혼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존재와 내세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참조**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인간으로 치면 사람이 먼저냐 수정란이 먼저냐 라는 질문과 같아집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성체로 창조하셨지 수정란으로 창조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수정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수정란을 키울 모태가 필요하여 다시 성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때에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생명체는 알이나 씨의 형태가 아니라 성장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십만 가지의 물고기 알, 개구리 알, 사람의 수정란, 소나무 씨, 은행나무 씨, 독수리와 공룡의 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성장하고 다음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즉 현상 나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인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창조시점에서만 이런 일이 있고, 이후에는 그 유전적 특성을 이어갈 알과 씨의 형태로 다음세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 보다는 닭이 먼저입니다.

게다가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는 놀라운 두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학습과 관계없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 굉장한 두뇌 활동의 한 예가 태초에 아담이 한 행위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벽에 첫 사람의 두뇌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름들이 의미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점박이, 술술이, 이쁜이와 같은 단어로 이름 지을 때, 현대인의 상상력이 매우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담은 위대한 통찰력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그 특성에 따라 지어줍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가 지은 동물들의 이름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사용하듯 다채롭고 의미가 매우 적절했을 것입니다. 사자의 위엄, 홍학의 우아함, 코끼리의 크기, 여우의 민첩함 등은 아담이 지은 이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창조는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별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이니라 - 출애굽기 33장 17절”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